불굴의 1000년史 책으로… 꼭 가봐야 할 100곳 선정

올해 전라도 정도(定都) 1000년을 맞아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등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추진한다. 3개 시·도는 올해 전라도 1000년 역사의 재정립과 미래 1000년의 창조기반 구축을 목표로 7개 분야 30개 사업을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추진한다. 이 가운데 전라도 이미지 개선과 문화유산 복원, 관광활성화 사업 등이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이미지 개선 사업 나선다

전라도 이미지 개선을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 높이기 사업들이 전개된다. 과거 군부 독재정권 이래 왜곡된 전라도 역사를 바로 잡고, 전라도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전라도 천년 연중 캠페인이 펼쳐진다. 매달 전라도의 인물과 문화유산, 5·18 민주화운동, 전라도의 미래 먹거리 등 전라도 정신과 유산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도 천년을 상징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전라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슬로건과 엠블럼도 제작된다. 엠블럼 디자인 개발과 슬로건 공모 추진을 통해 올해 1월 중 확정해 공식 공표식을 가질 예정이다.

1000년의 역사를 재정립하기 위해 전라도의 탄생과 고려의 멸망, 조선의 건국과 기축옥사(己丑獄事), 동학농민혁명까지 천년의 역사 가운데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한 천년사 편찬 사업도 진행된다. 올해부터 시작해 오는 2022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화관광 활성화 총력

전라도 방문의 해인 올해 다양한 문화관광 사업도 이뤄진다. 국내외 관광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한국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韓)마당 페스티벌을 3개 시·도가 공동 개최해 전라도가 전통문화의 본고장이라는 위상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 의식주 문화와 한류 열풍을 가져온 K-phPOP을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류 관광객 유치 추진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 3개 시·도는 지역별 순환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3개 시·도가 참여하는 호남권관광진흥협의회는 올해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전라도 대표관광지 100곳을 선정했다. 전라도에 위치한 생태, 역사, 문화자원 등 대표관광지 100곳은 광주 15곳, 전남 48곳, 전북 37곳 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행 속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특수목적 관광상품도 개발해 각 지역의 청소년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도 벌인다.

◇랜드마크 조성

광주시는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옛 도심에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전라도 천년 기념 상징 조형탑인 '천년의 빛'을 건립하고, 빛의 숲과 빛의 길 등 미디어 특화 거리 조성 등 미디어 창의파크를 만든다.

전남은 나주시와 영산강 일원 5만㎡에 테마별 역사문화정원인 '전라도 천년 정원'을 조성해 교육형·체험형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역사정원에는 전라도 정신과 인물 등 자료와 유물 모형이 전시되고, 시대별 문화·생활공간 공간으로 조성된다.

절의 정원은 삼별초와 이순신 장군, 의병, 동학혁명, 민주화운동 등 전라도 절의문화와 호국정신 선양공간으로 채워진다.

뿌리정원은 전라도 성씨 유래 조형물 등 충·효 교육공간으로, 문예정원은 판소리, 다도(茶道), 도자기, 수묵화 등 주요 전라도 문화예술 전시체험 공간으로 구성된다.

미래정원은 전라도 미래산업과 미래비전을 제시·홍보하는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전라감영 일대에 새천년 공원이 조성된다.

전라도 천년탑과 역사광장, 천년공원, 야외공연장, 테마 분수 등을 만들어 전북도민의 공간이자, 관광객들의 문화관광 공간으로 활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도 1000年 기념사업 무엇이 있나

문화전당 중심 옛 도심에 기념 상징 조형탑인 '천년의 빛'을 건립하고 빛의 길 등 미디어 창의파크를 만든다.

5·18 민주화운동·전라도 인물·미래 먹거리 등 전라도 정신과 유산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무등산·광주호 일대 사업비 1200억원을 투입해 생태탐방 체험관과 한옥단지 조성·호수생태원 확장 등 무등산 남도피아를 조성한다.

◇문화유산 복원

전라도 천년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복원해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복원될 대표적인 문화유산은 광주의 희경루, 전남도의 나주읍성, 전북의 전라감영 등이다. 광주시는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광주공원 내에 광주의 대표 누정인 희경루 중건을 추진한다. 1451년 광주읍성에 건립되었으나 화재로 소실됐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나주읍성 서성벽 복원 및 정비에 이어 올해부터는 나주읍성 성벽공원 조성, 나주 목관아 동헌 정비사업을 한다.

전북도는 올해 말까지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 전라감영 복원 및 실감형 콘텐츠 체험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한다.

◇천년 유산 남긴다

전남은 서남해안선을 잇는 천년 가로숫길을, 광주·전북은 무등산과 지덕권 생태문화 기반과 치유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무등산과 광주호 일대에 사업비 1200억원을 투입해 생태탐방 체험관과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 및 한옥단지 등 조성, 호수생태원 확장 등을 통해 무등산 남도피아를 조성한다.

전남도는 오는 2021년까지 서남해안 권역과 남해안 권역 16개 시·군에 걸쳐진 국도와 지방도, 마을길, 바닷길, 샛길 등 총 522km 달하는 거리에 가로수명품 해안 가로수길을 만든다. 남해안은 난대수종으로 사계절 푸른 경관을 조성하고, 서해안은 꽃과 열매를 이용해 사계절 꽃 피는 경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은 진안군 백운면 일원에 국토 서남권의 한방 특화 산림치유 거점인 국립 지덕원 산림치유원을 조성한다.

◇다채로운 기념행사

새해 첫날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의 종각에서 전라도 천년 맞이 타종식이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3개 시·도가 공동 참여하며, 천년 맞이 카운트다운, 전라도 천년 기념사, 대합창 등 대동한마당이 열리게 된다.

전남도는 천년의 새 봄인 4월 중 장흥 정남진에서 천년 가로숫길 조성 기념식을 갖는다. 전라도란 이름이 만들어진 지 천년이 되는 날인 올해 10월 18일에는 전주시 중앙동 전라감영에서 전라도 천년 기념식 및 문화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타종식과 거리축제, 축하공연,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게 된다.

◇학술 및 문화행사도 다양

'전라도 천년 역사 재조명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의 전라도 미래천년 포럼도 준비돼 있다. 관계 전문가 등이 초청돼 오는 9~10월 사이 학술포럼을 개최하고, 학술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전라도의 역사문화의 맥과 전통을 발굴해 새로운 천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사문화 콘텐츠 및 관광자원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올해 9월부터 열릴 광주비엔날레에서는 전라도의 역사·문화와 생활상을 재조명하는 '천년의 꿈' 특별전이 진행된다.

전남도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국제수묵화비엔날레 기간 중 '전라도 천년 1018~2018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전에서는 고려시대 이후 조선과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전라도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수묵화를 미디어아트로 제작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전라도 천년의 수묵화와 수묵화가의 업적도 전시된다. 전북에서는 9월7일~11월25일까지 도립미술관에서 '전라 밀레니엄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천년 전라의 기상과 새천년 희망을 현대 미술로 제시하는 자리다. 이밖에 전라도 방문의 해에 맞춰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제 관광컨퍼런스도 오는 10월 19일~20일까지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미국과 중국·일본 등에 살고 있는 해외 호남 향우 180명에 대한 고향 방문행사도 진행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